

# “세종시 이어 국토 남부에 제3의 수도 조성하자”

### 광주연구소·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오늘 정책토론회 “영호남권 부처·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발전 도모해야”

세종시에 이어 수도권에서 가장 먼 국토 남부권에 제3의 수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충청권만이 아닌 영호남권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광주연구소,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는 25일 광

주전남혁신도시포럼 남부경제권포럼(준), 지방분권개원 광주회의와 함께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4층 중회의실에서 ‘남부수도권 구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남부경제권 구상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유출 가속화, 지역대학 위기 심화, 지역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영·호남지역의 지방분권운동 단체, 지역연구소, 학회 등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돼 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성배 광주연구소 소장(조선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와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조진상 동신대교수,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토론을 벌인다.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장지상 교수는 “각 권역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묶어도 동남권 780만, 대경권 500만, 호남권 510만으로 규모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수도권 중심 경제생태계에 필적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각각을 메가시티로 육성하되, 1800만 인구의 영·호남을 묶어 하나의 경제생태계로 작동하는 메

가리전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원 교수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미약해 지방을 국가발전의 중심에 두지 않았고, 불균형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미치지 못했다”며 “수도권 내 대학, 고급일자, 신도시 건설 등 3가지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기본적으로 지역혁신전략은 기존의 산업·기업 투자 중심에서 대학·교육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부권 기술 및 문화 기반 벤처 창업 등에 약 20조원을 투자하는 등의 빅 푸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AI 기업 135번째 유치

### 市, 인피니트헬스케어 등 협약

광주시는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피니트헬스케어, 클리카와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업은 사업화 추진, 기술·정책 개발 등을 돕고 광주 법인이나 지역 사무소도 설립하기로 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10년 코스닥에 상장한 의료·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클리카는 지난해 서울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머신러닝 오피레이팅(MLOps)이라는 인공지능 개발 환경을 제공해 빅데이터를 검증하고, 인공지능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다. 이 회사 최고기술경영자(CTO) 벤야민은 인텔이 인수한 이스라엘 모바일의 핵심 엔지니어이다. 클리카는 최근 광주 아이 플렉스(I-Plex)에 본사를 이전하고 인공지능 사관학교 출신 인력도 채용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시와 협약한 기관·기업은 135곳으로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해 달라”

### 전남도, 나무심기 행사서 산림청장에 예타 통과 등 요청

전남도는 24일 완도 고금면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나무심기 참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완도군 2022년 첫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한반도 아열대화 기후변화에 대응할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을 최병암 산림청장에게 건의했다. 이날 열린 나무심기 올해 첫 행사에는 최병암 청장, 황금영 (사)숲속의 전남 이사장과 임업단체, 지역주민 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난대수종인 황칠나무 1600그루를 심었다.



거소 투표용지 인쇄 24일 오후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자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는 행사에서 참석한 최병암 청장에게 “한반도 아열대화 등 기후변화 대응 전초지가 전남이고, 국립난대수목원이 조기에 조성돼 그 중심에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도유지와 국유지 간 신속한 토지교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4월 말까지 2200ha에 463만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편백나무, 소나무, 백합나무 등 1800ha와 기후에 대응한 난대수종인 황칠나무 숲 400ha를 조성한다.

미세먼지 및 산림재해 등 사회적 이슈의 적극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숲, 산불 예방을 위한 내화림대 조성,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소득숲 등 다양한 기능의 숲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시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숲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숲 조성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

### 올부터 소득 상관없이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전남도가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소득 기준을 초과한 첫째아 출산가정은 사업

에서 제외돼 도내 산모들의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가정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올해부터 출산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시(10월 기준) 출산가정에서 평균 23만원만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나 온라인(정부 24, 맘편한 임신·출산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

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초석은 출생친화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많이 낳는 으뜸전남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전남도 출생아 8567명 중 서비스 이용자는 4061명으로 전체 출산가정 10가구 중 5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문영훈 기획조정실장에 김정훈 임명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정훈 기초실장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문영훈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에는 김정훈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이 25일 취임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 부시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장흥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 등 지방행정 분야 주요 보직과 청와대 행정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인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면서 ‘그린 스마트 펀 시티(Green Smart Fun City)’ 실현을 통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비전 수립 등 기획역량을 발휘했다. 김 실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서석고,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저지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방고시 1회로 광주 시 도시재생과장, 투자유치지원관, 창조도시정책 기획관 등을 거쳤다. 한편 김종효 전 행정부시장은 정년을 3년 가까이 앞두고 명예퇴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